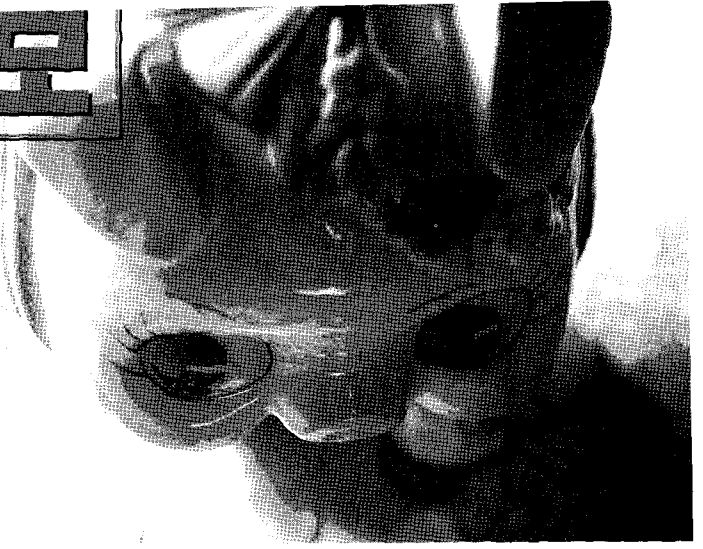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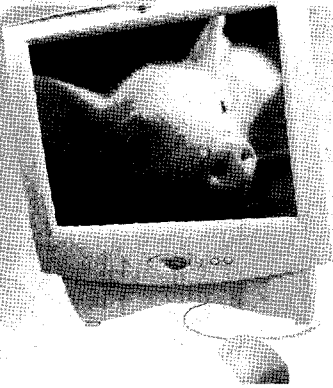


축산 · 정보



농림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마련

- HACCP 등 위생관리 및 소비자 신뢰확보에 주력 방침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 7월 29일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 아래 금년 초부터 전문가·학계·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작업반(T/F)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도, 소비자단체 등에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항생제 등 위해잔류물질이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수를 현행 53종에서 25종 내외로 대폭 감축하는 등 사육과정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농장에서부터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농장에 대해서는 '06년 양돈을 시작으로 젓소('07년), 한우('08년), 산란계('09년), 육계('10년) 등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자율 실시하

는 농가에 대해 정부가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농림부는 도축장 HACCP 운용에 따른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식육의 최종 판매단계에서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식육판매업 신규개설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축산물 가공품 원료육 및 유통중인 축산물 위생관리,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축산물 위생관리 한 층 더 높게

-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개정

농림부는 최근 소비자들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해 축산물의 부정유통 단속 및 축산물위생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림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때 음식점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원산지를 기재해 발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밖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HACCP의 선행프로그램으로 작업장의 종사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작성해 준수토록 하는 자주적 위생관리기법인 SSOP(위생관리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현재 도축업·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한해 의무적용 중인 것을 집유업, 축산물보관·운반·판매업소 등 모든 작업장 및 업소로 확대했다. 한편 농림부는 모든 작업장에 대한 SSOP의무적용, 검사관 등 의무배치 기준,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증명 발급 의무화 등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 '축산물위생관리 업무 농림부 관리 바람직' 의견 제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행자)는 지난 7월 16일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이 최근 밝힌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대한 회의를 갖고, 축산물의 경우 특성상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쪽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문성과 책임행정을 강화한다고 판단되어 현재와 같이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무조정실·농림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같은 의견을 제안하며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관리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식품안전 확보

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며,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해 소비자대표가 포함된 책임 있는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 협상 기본골격 마련

세계무역기구(WTO) 오시마 일반이사회 의장은 7월 30일 오전 농업분야를 포함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 2차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골격(Special Product, SP) 농업분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고을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각국이 선정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키로 해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그리고 블루박스를 무역왜곡보조로 규정하고 이를 합한 총액에 대해서도 감축의무를 부과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입각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무역왜곡적 국내보조를 합한 총액의 20%를 첫해에 감축토록 하는 개념을 새로 추가했다.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국영무역·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했으며, 개도국에만 허용되는 물류비 지원 등 수출보조는 유지하였다.

한편, 향후 협상은 제6차 홍콩 WTO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 신청기한 9월 말까지 2개월 연장

- 연대보증 피해자금 연장신청은 12월 말까지

농림부는 지난 5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서 농가부채경감대책의 농업인 신청기간을 7월말까지 연장했었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가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지원 신청을 다시 9월말까지 연장함에 따라 아직까지 부채경감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은 다시 한번 부채경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농어가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 기한도 당초 7월말에서 오는 12월말까지 5개월을 늦추기로 했으며, 농림부는 7월 23일에 계획대비 89%인 13조9천억원이 신청됐으나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부채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협과 산림조합으로 접수된 부채경감 신청액은 총 13조9천억원으로 대상자금 15조6천억원의 89%에 해당하며, 수협에 접수된 신청액은 6천231억원으로 대상자금 7천201억원의 8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5년 연장해야

- 민주당 김효석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는 시기상조"

정부가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10명은

농산물 시장개방, 농업소득 감소 및 농가부채 증가 등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시한을 200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올해 종료되는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대신 자격요건을 전업농어민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지난 86년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돼,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연 5.5%외에 법정장려금리 연 1.5~2.5%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가입금액은 2조1000억원이다.

농림업 생산 총액중 단일품목 돼지 두 번째 서열

최근 농업정보통계관실에 따르면 '02년 농업 총생산액은 약 32조1천4백68억원이며, 여기서 돼지 생산액은 약 2조9천1백84억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해 우리나라 농업에서 단일품목별 생산액이 쌀 다음으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 총생산액 9조5백19억원은 전체 농업 총생산액의 28.1%에 해당하며, 축산업 중 돼지 생산액은 2조9천1백84억원으로 축산업 총생산액 중 32.2%를 차지해 축산업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축산업 총생산액은 2001년 8조3천1백20억원에서 2002년은 9조5백19억원으로 전년대비 8.9% 증가했으며, 돼지 생산액은 2000년 이래로 계속 증가해 2001년 2조6천9백23억원 대비 2002년에는 2조9천1백84억원으로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전체 농업에서 축산 및 양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전국양돈장 분뇨처리 실태조사

양돈농가 분뇨처리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축사배출 형태와 처리실태, 자원이용 상황 등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농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부장 나상진)는 전국의 양돈농가중 분뇨처리 시설이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8~9월중 개별방문에 의한 직접조사 방법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분뇨처리 운영실태 조사는 9월말까지 조합별 자체 계획하에 전국 1만호의 양돈농가를 목표로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내용에는 사육시설과 분뇨분리방법, 처리시설, 방법별 처리량, 퇴비액비이용실태, 분뇨처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축산환경기술 상담원들은 조사자료를 축산사이버컨설팅에 전산입력토록 할 방침이다. 농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D/B화 하면 도별, 시·군별 실태과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처리비용과 방법별 활용상태 등을 토대로 사전예측이 가능한 지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협, 농업인 재해보장 보험료 지원

농협중앙회는 최근 농업에 종사하다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계약자 보험료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 안전공제’, ‘농기계 공제’ 등 농업인 재해보장 상품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은 전국 1천338개 지역농협 가운데 563곳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지원 보험료는 계약자 부담금의 50%에 달한다.

이들 상품의 보험료는 절반을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절반을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농협이 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료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독약품에 “다른 소독약품 혼용 금지” 리벨 부착해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7월 14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동물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 하여금 소독약품 제조(수입)·판매시 제품별 포장지(라벨)에 “다른 소독약품과 섞어서 사용금지”와 같은 경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의과학검역원은 일부 축산농가에서 다른 소독제와 혼용·병용하는 사례가 있어 소독효과 저하 등으로 가축 방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소독약품 오용방지를 위한 제품표시관련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소독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기존에 제작된 소독약품 포장지에 “다른 소독약품과 섞어서 사용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고 신규제작 포장지에는 위와 같은 경고문안을 삽입해야만 한다. 또한 경고문안 부착시 포장지와 스티커 색상을 고려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표시되도록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야만 한다.

돈열 항체 양성률 꾸준히 상승

- 6월 돈열 항체양성률 96.5%

올해 들어 돈열 항체 양성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돈열 항체 양

성률은 평균 9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비육돈 농가 1천4백호 1만9천4백65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률이 95.6%를 기록했으며, 번식돈 농가 (5백9농가 4천7백74두)가 96.9%, 자돈(1농가 10두) 100%로 각각 조사돼 전체 양성률이 전월 96.3%에 이어 2개월 연속 96%대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항체 양성률은 1월 95.0%, 2월 95.9%, 3월 95.6%, 4월 95.7%, 5월 96.3%, 6월 96.5%로 3월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체 양성률 80%대 미만 지역도 끊이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9월초 시·군 공급

- 검역원,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중간 평가회 개최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해 9월부터 시범사업 참여 8개 시·군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계획임에 따라 관련 추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원(원장 박종명)은 지난 8월 3일 검역원 소회의실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군 담당자 및 검역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부터 돼지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에 대한 중간 평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검역원은 이날 향후 추진계획을 '가축 방역관리 확인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른 시·군 단위의 교육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검역원은 이동가축 방역관리 전산프

로그램 개발과 관련, 입식신고에서 정밀검사 등록까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입식사항 전반을 향후 시·군, 시험소, 방역본부 등 업무주체별로 관리하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해 시·군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2004년 모돈갱신사업 선정기준 변경

- 농장검정 미 실시 종돈장서 구입한 모돈에도 갱신비 지원

최근 분회 포천지부가 경기도 축산과에 2004년도 모돈갱신사업 선정기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모돈갱신사업 선정 기준 지침이 변경됐다.

경기도는 '04년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지침에서 당초 모돈 공급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행한 혈통등록증을 제출할 때 부모돈에 대한 산육능력검정실적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부모돈에 대한 산육능력검정 실적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모돈 입식 시에도 부모돈의 산육능력검정성적 부분을 삭제 변경시켰다. 이에 따라 농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종돈장을 통해 모돈을 구입한 농장들도 모돈갱신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모돈갱신사업 지침이 종돈장에서 모돈 공급시 PSS유전자 미보유 여부, 동복자돈수, 생년월일, 품종, 이표번호, 소유자·번식자가 기록되어 있는 혈통등록증만 제출하면 됨에 따라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포천지부는 당시 농장검정 체제가 우량 모돈의 선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

하고, 농장검정 부분이 시기상조이므로 국가적 유전·육종 체계의 정립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혈통증명서 발급의 추가만은 현 체제에서 선정기준으로 삼을 것을 경기도 제2청사 축산과에 건의했었다.

등급판정결과 농가 중심으로 개편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그간의 등급판정결과 농가통보방법을 개선해 출하자 중심의 정밀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등급판정결과의 활용도 제고와 고급육 생산에 기여토록 했다.

현행 농가통보 방법은 도축장 단위별로 출하된 돼지의 등급판정결과를 각 농가에 제공하고 있으나, '04년 8월부터는 전국 도축장의 모든 등급판정결과를 취합하여 농가별로 일괄 통보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자료관리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통보내용도 전체 등급판정결과를 활용하여 세밀하고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함에 따라 고급육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체별 등급판정성적을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 돼지 50두 이상 출하농가의 경우는 상세분석자료를 추가로 제공기로 했다. 특히, 각 출하농가별 등급판정성적과 전국 및 시·도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월별 출하현황으로는 연간 변화추세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 브랜드경영체 등의 고급육 생산 의욕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품목에 돼지고기 가장 많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올해 6월

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506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 475건보다도 31건 많아 6.5%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위반 유형 중 허위표시 품목에 돼지고기가 3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미표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8건을, 쇠고기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7월까지 돈육 수입 지난해 총수입 돌파

- 1~7월 돈육수입 누계 6만3천887톤

4월 1만2천2백톤, 5월 1만2천6백톤, 6월 1만1천7백톤 등 최근 꾸준히 1만톤을 넘기며 급증하던 돼지고기 수입이 7월 들어 주춤해졌다. 농림부의 수입검역통계 순기보고 7월 하순자료에 따르면 7월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8천680톤으로 전월의 1만1천734톤보다 3천54톤이 줄었다.

그러나 7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 총 누계는 6만3천842톤으로 지난해 총 수입물량인 6천790톤보다 3천52톤이나 넘어섰다.

부위별로 살펴보면 삼겹살이 6천190톤(전월 6천219톤)으로 가장 많고, 목심 1천139톤(전월 1천602톤), 갈비 926톤(전월 1천362톤), 앞다리 87톤(전월 2천154톤), 등심 55톤, 뒷다리 49톤(전월 74톤), 안심 29톤 순이다. 국별로는 벨기에가 1천879톤으로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칠레 1천55톤, 프랑스 1천20톤, 오스트리아 803톤, 캐나다 805톤, 네덜란드 711톤, 헝가리 547톤, 미국 479톤, 폴란드 364톤, 덴마크 270톤, 스페인 249톤, 호주 196톤, 스웨덴 193톤, 핀란드 64톤 순이었다.

돼지고기, 농산물 수출 효자 품목

최근 농림부는 '04년도 돼지고기 수출액이 전년대비 23.8%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04년도 상반기 농산물 수출액은 9억5천8백만달러이며, 이 가운데 축산물 수출액은 7천2백4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2.5%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돼지고기 수출액은 러시아와 일본으로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수출액이 1천170만달러로 전년대비 23.8% 상승했으며, 돼지고기 수출 물량은 8천400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로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도 돼지고기가 포함돼 있으며, 금년 상반기 일본으로 수출된 돼지고기 물량은 200톤으로 '03년 상반기 40톤에 비해 434.3%로 상승, 수출액은 지난 해 40만 달러에 비해 120만달러로 229%나 상승해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돼지 발생률 소폭 증가

- 상반기 13.4%로 전년대비 0.8%포인트 늘어

축산물등급관정소는 '04년 상반기 냉도체 등급관정두수는 6만1천168두로 전체 돼지 등급관정두수의 0.8% 수준으로 등급별 출현율은 1+등급 86.2%, 1등급 0.4%가 출현됐으며, 2등급(물돼지)은 13.4%가 출현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물돼지 발생률 12.6%에 비해 0.8% 높아진 결과다.

새 수도 경계선은 축산업 생존 경계선

정부가 최근 충남 연기·공주지역을 새 수도 입지로 확정함에 따라 인접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양돈농가에서는 새 수도 입지에 편입이 안돼 규제가 걸리지 않을까 초조해 하며 편입이 되면 보상이라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은커녕 축산업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축사의 악취나 오·폐수를 유발한다고 새 수도 인근에서 돼지를 못 키우게 될 확률이 높다고 심정을 밝혀왔다.

일본 SG발동, 제주산 돈육 수출 큰 영향 없을 듯

최근 일본의 양돈농가 보호를 위한 SG(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으로 4년여만에 재개된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에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6일 제주도는 일본에서 광우병 파동 이후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해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크게 상승하자,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SG를 발동해 돼지고기 수입관세 4.3% 부과 기준을 kg당 524엔에서 653엔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입관세 부과 기준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했던 냉동육(등심 kg당 490엔선)의 경우에 기존 524엔의 4.3%(kg당 22.5엔)보다 더 무거운 653엔의 4.3%(kg당 28엔)의 관세를 내기 때문에 돼지고기 수출에 부담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관세 부과 기준보다 높은 가격에 수출되는 제주산 돼지고기 냉장육(안심 kg당 750)은 기존과 다름없이 그 가격의 4.3%의 관세를 내면 되므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일본의 SG발동은 지난 97년 이후 매년 같은 시기에 이뤄졌으며, 일본측 수입 바이어들이 관세를 포함한 추가 통

관수수료 등에 대해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수출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B등급 비율은 70.1%였다.

제주산 돈육 A·B등급 비율 전국서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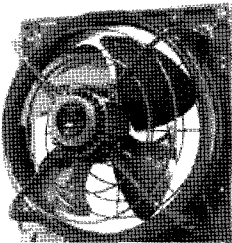
제주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축산물등급 판정소가 올 상반기에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 도축한 돼지를 대상으로 품질을 조사한 결과 고급육(A, B등급) 비율이 75.6%로 전국 최고였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국 평균 A·

서울대 농생대 평창캠퍼스 조성 추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캠퍼스가 강원 평창군에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와 협의해 경기 수원시에 있는 목장과 농장을 옮기고 식물병원 연구시설 등을 포함시켜 100여만평 규모의 평창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처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첨단 농업생명과학연구단지를 건설하고 현장교수제를 도입해 농민을 상대로 교육하고 관련 기업에 신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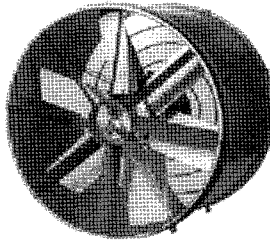
쾌적한 돈사 환경은 환풍기 전문 생산업체에 문의

ISO 9001 인증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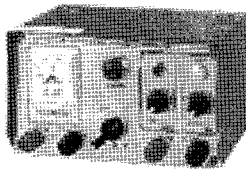
고압 배기팬

- 용도 : 양돈, 양계장, 내부의 암모니아 가스 및 분진, 악취 배출에 적합하게 설계됨
- 특징 : 이연도 강판과 EGI 철판 위에 특수도장으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제작된 축사배기 전용 환풍기



축사입기(A-550/600/700)

- 용도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축사내부로 송풍하는데 최적
 - DUCT를 연결하여 사용
 - 양돈, 양계장에 적합
 - 화훼, 원예, 비닐하우스
 - 기타



타이머(HT-45(TIMER))

- 용도
 - 저렴한 실내환기에 알맞게 시간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정지와 작동하게 하는 환풍기 전용타이머임.
 - 양돈, 양계장, 환기시스템 등에 사용
 - 기타 일반용도에도 사용가능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도사리 662번지
TEL : 031-981-8312(대표) FAX : 031-981-6128

www.HSfantech.com